

‘조커’ 요키치, 3번째 MVP 수상

2014시즌 미국프로농구(NBA) 드래프트가 열릴 당시만 해도 니콜라 요키치(29. 덴버 너기츠)는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다. 신장 211cm에 윙스팬이 221cm에 달하는 요키치는 이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1순위로 덴버 너기츠에 지명됐고, 이 순간 주관 방송사는 중계를 멈추고 광고를 내보내며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키가 큰 선수’로만 평가받았던 요키치는 ‘못 하는 게 없는 선수’가 됐다. 이런 요키치에게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카드’란 뜻으로 ‘조커’라는 별명이 붙었고 2021년과 2022년 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요키치는 덴버를 NBA 정상에 올렸고, 챔피언결정전에서도 MVP에 올랐다. 다만 3년 연속 정



▲ 니콜라 요키치. 사진=연합뉴스

규리그 MVP 수상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요키치는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며 마침내 3번째 별종의 별이 됐다. NBA 사무국은 8일 2023~2024시즌 정규리그 MVP로 요키치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요키치는 1946년 출범한 NBA에서 3회 이상 MVP를 받은 9번째 선수가 됐다. 특히 NBA가 명실상부한 세계 농구의 중심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3회 MVP를 수상한 건 르브론 제임스(40·LA 레이커스)와 요키치뿐이다

한편 신인왕은 만장일치로 빅터 웬반아마(20·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차지했다. 신인왕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건 1990년 데이비드 로빈슨과 2011년 블레이크 그리핀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저스, 올 시즌 최단 시간 경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압도적인 투수력을 앞세워 올 시즌 팀 최단 시간 경기를 펼쳤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저스는 전날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2024 MLB 홈경기에서 선발 개빈 스톤의 호투와 불펜진의 완벽한 릴레이로 3-1로 승리했다.

이날 양 팀은 치열한 투수전을 펼치며 단 1시간 55분 만에 경기를 끝마쳤다.

MLB닷컴에서 각종 기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라 랭스 기자는 “다저스는 최근 5경기를 모두 2시



▲ 지난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팀 코리아와 경기에서 역투 중인 LA 다저스 개빈 스톤. 사진=mk.co.kr

간 25분 안에 끝냈다”며 “이는 1980년 6월 11일 이후 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짧은 경기 시간으로 선수들의 체력까지 비축하는 다저스는 이날 현재 올 시즌 26승 13패 승률 0.667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내달리고 있다.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승차는 6.5 경기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바비 밀러, 클레이턴 커쇼, 더스틴 페이, 토니 곤잘레스, 에밋 시핸 등 많은 선발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스톤 등이 빈자리를 잘 메우고 있다”며 “다저스 선발진은 지난 달 22일 이후 평균자책점 2.19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전 세계 프로축구 공격수 중 수비 가담률 1위



▲ 지난 4월 아스널전에서 상대선수와 공을 다투는 손흥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전 세계 프로축구 공격수 중 가장 수비 가담이 많은 선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소(CIES)는 8일 전 세계 30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의 수비 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손흥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CIES는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와 신체 접촉 및 볼 터치 없이도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를 기준으로 수비 가담 정도를 평가했다. 두 요소를 합산한 결과 손흥민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특히 수비 복귀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 부분에서 월등한 활동량을 자랑해 1위(100점)에 올랐다.

손흥민은 압박 횟수에서는 전체 7위(86.6점)에 자리했다. 유럽 5대 리그(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잉글랜드, 프랑스)로 한정하면 질주 거리는 물론 압박 횟수 역시 1위였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히사를리송은 질주 거리(89.9점)와 압박 횟수(76.8점)에서 각각 2위에 오르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CIES는 손흥민과 히사를리송이 나란히 1, 2위에 오른 것에 대해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 상황 시 공격수들에게 높은 수비 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평발 (Flat Feet)

무지외반증 (Bunion)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신경종 (Neuroma)

발통풍 (Gout Attack)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사마귀 (Plantar Warts)

무좀 (Athlete's Foot)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